

## 신(新)데렐라 - 아름답기만했다 작품 분석

### Cinderella - She was Only Beautiful

조 성 희  
강원대학교

Cho sungh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요약

신데렐라가 찾고 있는 잃어버린 신발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 꿈, 무의식, 허구이며, 그 여정은 비가시적인 공간 속으로 길을 내고 찾는 여행이다.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의 각색, 구두의 이미지 변환과 역설적 표현으로 풀어나갔으며 본 작품은 제 12회 전국무용제에서 금상 및 최우수 연기상 수상작이다.

#### I. 작품소개

1. 제목: 신(新)데렐라 아름답기만 했다.
2. 초연 : 2003년 9월 20일
3.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 작품길이 : 40분
5. 스태프  
안무 : 조성희, 연출 : 김동현, 그래픽 : 송용재,  
영상기록 : 이상욱, 무대미술 : 손호성,  
무대감독 : 오경택, 음악 : 주상후, 의상 : 김시내

#### II. 작품해설

신데렐라의 잃어버린 구두 한 짝은 우리들 현대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운명적 불완전성과 불구성에 대한 하나의 우화이다. 잃어버린 신발은 절대로 추구로 획득될 수 있는 이상과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기호(記號)이며 패션에 불과하다. 이 상대적 기호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희극은 때론 현실공간을 넘어서 우리들의 무의식까지 억압한다. 땅을 뚫으면 다시 그 만큼 거리를 늘리고 이름을 바꾸면서 연장되는 우리들의 욕망은 사실은 텅 빈채로 어떤 중량을 기다리는 저울과 같다. 현대인은 물질과 문명의 껍데기인 기호와 패션의 저울위에 다리를 놓고 몸을 밀어 넣으며 그 기호와 패션의 값을 매기고 그 값을 기꺼이 셈하는 슬픈 연극의 주인공들이다. 신데렐라가 잃어버린 신발을 향해 떠나는 여행은 바로 그 연극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축제이며 공간 그 자체이다. 그 공간은 세속의 길이며 우리들이 기호와 패션의 옷으로 치장하고 꿈과 행복과 이상이란 시로 채운 이미지의 바다이기도 하다. 신데렐라의 여행의 끝은 바로 그 이미지의 바다이며 그 바다를 향해하는 '피안의 크루즈'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꿈이 아름답게만 부유하고 엇갈리는

희비극을 보여주고자 한다.

#### III. 안무의도

신데렐라가 찾고 있는 잃어버린 신발, 아니 찾고 있는 신발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 꿈, 무의식, 허구이며 그 여행은 바로 비가시적 공간 속으로 길을 내고 찾는 여행이다. 따라서 신데렐라의 여행은 현실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이상과 꿈의 파티가 되기도 하며 그 현실과 이상의 대립이 빚어내는 좌절의 풍경이 되기도 한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자체가 춤이며 노래이고 그 춤과 노래는 현대적인 기호와 물성(物性)으로 증폭되고 변주되면서 공간의 비가시성을 연상과 상상으로 자유로이 변주해간다.

이 작품은 그 변주의 탄력과 리듬을 이용한 경쾌한 우화 속에서 빛어지는 신데렐라의 유희이다. 그 유희의 끝에서 그녀가 찾고 있는 신발 또한 현실의 '육지' 위에서는 절대로 찾아질 수 없는 이미지의 '바다'에 화석처럼 가라앉은 하나의 기호(記號)에 불과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인식은 슬프지만 유희의 바다를 솟구쳐 오르는 신데렐라는, 그리고 가라앉은 그녀의 신발은 여전히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하나의 무게이고 어떤 고요함이다.

#### IV. 장면구성

표.1 작품의 구조

장면	특징
fashion show	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아니어서 자유로운 신발들
기억	빨간 구두의 즐거운 놀이
show window	음악적 반복을 통한 반복의 놀이
여행(날개)	신발을 찾습니다
봉봉거리는 상상의 축제	신발들의 기억
이미지의 바다	나의 것이 아닌 수많은 신발
놀이의 끝	아름답게 인형처럼 웃고있다

## V. 비평

「신(新)데렐라 - 아름답기만 했다」(안무 조성희)는 동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비틀어, 잃어버린 신발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꿈으로 대치시켜 풀어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 자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데렐라의 인물 자체를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닌, 잃어버린 신발을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안무가의 독특한 관점이 눈길을 끌었다. 안무자가 설정한 잃어버린 신발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 꿈, 무의식, 허구 등으로 안무자는 그 신발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길을 박스 등의 소품을 이용해 놀이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유희성을 곁들여 코믹하게 풀어 헤쳤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데렐라 역 조성희의 연기와 춤은 드라마 성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출중했다. 신발이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신어 보는 과정을 춤으로 연계시킨 것이나 의상을 바텐에 걸고 그것의 이동을 통해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갈아입도록 하는 시도 등도 단절됨이 극을 자연스럽게 전개시키는 요인이 됐다. [1]

〈신(新)데렐라 - 아름답기만 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독창적이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상념을 유도하는 연출력을 지닌 대표적 현대무용가가 조성희다. 조성희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지닌 많은 여자들 중 한 명으로 등장해 환상과 비애와 웃음을 선사하며 공감을 유도했다. 절뚝거리는 주인공의 방향에서 현대인의 허전한 구석이 실체를 드러냈다. 구성의 전개가 논리 정연한 수작이었다. [2]

조성희가 던져준 장면을 보고 있자니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걸리지 않은 현대인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파고들었다. 무작정 예뻐지고 보자는 환자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다루며 조성희는 안무가로서의 선천적인 능력을 드러냈다. 조성희는 적어도 필자에게는 재미있는 작품을 잘 만드는 안무자다. 표현주의 현대무용에 오랫동안 절어있던 한국 무용계 전체에 반기를 든 대단한 용기이지 개성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수십 년간 춤 기교

는 조목조목 따져 구분하면서도 작품의 소재나 형식 혹은 각색에 대해서는 정말 무심했다. 조성희가 보여준 압축된 각색법, 희극적 풍자가 대단하게 느껴졌던 이유도 그러한 무심함의 반발이었을 것이다. [3]

## ■ 참고 문헌 ■

- [1] 장광열 “공연평 제12회 전국무용제” 춤, 제28권, 제10호, pp.118-119, 2003.
- [2] 문애령, “신선한 감각과 실험성도 꿰어야 보배,” Dance Magazion MOMM., Vol. 107, pp.87, 2003.
- [3] 문애령, 유머러스한 개성이 돋보이는 안무가, Dance Magazion MOMM. Vol111 pp. 19, 2004